



학부제, 버릴 것인가 살릴 것인가

손 동 현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장

쟁
점
토
론

이제 ‘이름뿐인 학부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학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학부제가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필요성이 입증된 분야에서는 철저한 준비로 명실상부한 ‘학부’의 설립을 예비해야 한다.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의 의무화, 연계전공의 다양화와 활성화, 교육과정의 교차 등이 그 과도기적 대비책이 될 것이며, 진정한 학부제의 완성을 위해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교육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과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부제, 유지되어야 하나?

I. 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 방향

대학마다 학부제가 문제다. 좋은 취지로 도입하긴 했지만, 학문 분야 간의 불균형, 기초학문의 위축, 전공심화교육의 약화 등 부작용과 역효과가 너무 커 이젠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에서도 난처한 모양이다. 대학들의 불만을 생각하면 학부제라는 것에서 그만 손을 떼고 싶지만, 그것은 학부제 도입을 독려했던 정부로서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각 대학의 사정을 일일이 점검하며 판정을 내려줄 여력도 없다. 학부제, 정말 버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되살려내야 할 것인가.

필자는 이런 양자선택적 설문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

에서의 학부제는 아직 한국의 대학에서 시행된 적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설문을 정직하게 하자면 실은 지금의 사이비 학부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종전의 학과제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부제를 시행할 것인지, 이 선택지들 가운데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가 문제다.

10여 년 전 교육인적자원부의 주도 아래 한국의 대학사회에 ‘학부제’가 도입될 때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도 유효하다. 바야흐로 정보화·세계화의 시대에 접어들어 ‘지식사회의 지형도’가 크게 변모하는 변혁기에 한국의 대학도 선진화되어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연구와 교육의 양상이 크게 달라져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

해 그에 걸맞은 학사구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학부제’였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학부제는 명목상으로만 시행되어 왔을 뿐,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부작용만을 빚어냈고, 이제 와서는 학부제를 폐지하자는 학부제 무용론이 대학마다 우세한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를 대학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권유와 독려가 거의 준강제로 작용했고, 그 시책이 획일적으로 적용된 데 있었다. 대학들은 명실상부한 ‘학부’의 구성에는 별로 뜻이 없었고, ‘모집단위 광역화’라는 학부제의 형식적 ‘무늬’만 갖춰 정부의 지원이나 받고 보자는 편법적 사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학부제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변혁의 고통을 감수하며 명실상부한 ‘학부’를 만들어 선진 대학의 기초를 닦을 것인지, 차라리 종전의 학과제로 돌아가 변화 없는 안정을 되찾고 서서히 쇠퇴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과도기적인 절충적인 방도를 찾아 학부제를 예비할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학부제 도입 10년이 된 지금, 이제는 미봉책을 버리고 그 근본 문제부터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Ⅱ. 교육환경 및 교육적 요구의 변화

‘학부’란 무엇인가? 학부란 다양한 학문 분야의 교수진이 속하는 연구공동체로서의 교수

조직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학습하는 학업공동체로서의 학생조직도 되는 학사구조상의 한 단위기관이다¹⁾. 특정 전공 분야만으로 이루어지는 ‘학과’ 대신 여러 전공 분야가 함께 어울리는 이런 ‘학부’를 학사기구로 도입하고자 했던 취지는 무엇일까?

학부제 도입의 근본 취지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학들의 학과들을 통폐합함으로써 그 구조와 기능을 효율화하고,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의 폭과 기회를 넓혀주고, 교육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한편, 기존 학과 간 학문 간의 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학제 간 연구를 증진시켜 대학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²⁾. 그렇다면 이러한 학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종전까지 유지되어 오던 학과제의 문제는 무엇이며, 새로운 교육적 요구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도를 야기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어떤 것인가?

큰 틀에서부터, 먼 곳에서부터 생각해 보자.

1. 지식사회의 지형 변화

역시 문제의 근원은 디지털 혁명이다. 한편의 인공지능기술, 즉 정보의 이해-생산-보유 기술과 다른 한편의 통신기술, 즉 정보의 전달-교환 기술이 하나의 기술로 융합되었다. 이로 인해 인간에게만 고유하던 사고와 감각의 통합적 활동이 기계의 세계로 확장된 것이다.

1) 그동안 우리에게 친숙한 ‘학부’라는 단어는 대학원의 석·박사과정(graduate course)과 대비되는 학사과정(undergraduate course), 즉 교육과정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학부’는 학과(department)와 대비되는 학사기구로서의 학부(faculty)를 가리킨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필자는 전자를 가리키는 말로는 ‘학사과정’이라는 말을 쓸 것을 제안한다.

2) 정진농, 2001 대교협 토론회

바로 이 하나의 '정보통신' 기술이 돌연 등장하여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 이른바 문명생활의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우리의 주체에 직결되는 중요한 현상은 이로 말미암아 '지식사회'의 지형(地形)이 근본적으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정보의 복사-재구성 등 산출이 용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보량이 천문학적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정보의 바다'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의 유통, 즉 지식의 전달-공유에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되었다. 정보화가 필연적으로 세계화를 불러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구의 저쪽 끝에 있어도 통신망 안에서는 이웃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한마디로 지식의 창출-전수-활용(혹은 달리 말해 정보의 생산-유통-소비)의 양식이 크게 변모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식영역 간의 경계를 약화시켰다. 제도적 장치나 물리적 제약이 특정 분야의 지식에 독자적 독립성을 부여하던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서로 다른 영역의 지식이 용이하게 결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지식의 습득이나 전달을 위해 갖추어야 했던 제도적·물리적 조건이 사이버 공간 속에서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특정한 지식을 얻기 위해 특정 교육조직에 전속되어야 하는 사회적 제약도 무력화되었고, 지식원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했던 일정한 물리적 요건들도 지극히 단순화된 것이다. '정보의 바다'에 '접속'하기만 하면 모든 영역의 모든 지식이 가용한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다양한 기술들 간의 연계가 용이해지고 나아가 융합되는 현상도 여기서 연유한다. 기계공학기술과 전자공학기술이 결합되어 이른바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가 등장한 것

은 이제 오래된 일이고, 최근에는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이 융합되어 생명정보공학(Bioinformatics) 기술이 등장하고, 생명공학과 전자공학이 결합하여 생명전자공학(Bioelectronics)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나노 공학기술(Nano Technology)이 등장하여 NT, IT, BT 등이 서로 결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과 기술의 연계 및 융합현상은 지식을 이용한 인간의 욕구 충족 과정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욕구 충족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과정이 저와 같이 제약을 벗어남에 따라 인간의 다양한 이질적인 욕구들도 동시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히 산업구조와 직업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독자적으로 발전하던 산업의 각 분야가 서로 가까이 접근하여 융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직업세계도 전문화의 길로 치닫던 양상에서 그것이 다양화되거나 또 여러 분야가 연계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방송과 통신이 하나가 되듯 정보산업과 통신산업이 융합한 것은 기본이요, 통신회사에서 결제업무를 하는 경우처럼 통신산업이 금융산업과 결합하는가 하면, 가스산업과 전력산업이 융합하기도 한다. 산업의 발전이 욕구의 충족과 함수관계에 있음은 자명한 일이거니와 지식을 이용한 욕구충족의 과정과 양상에 일어난 변화가 산업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2. 교육적 요구의 변화

지식사회의 지형이 달라지고 산업구조가 변모하는 문화변동의 상황에서 교육적 요구가 달라지고 이에 부응하여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

육방법이 변모하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다. 특히 새로운 지식의 산출과 전수의 최전선에서 있는 대학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다. 우선 교육적 요구의 변모를 보자.

지식원예의 접근이 용이하여 지식의 습득이 더 이상 핵심문제가 되지 않는 새로운 지식사회에서는 단순한 지식의 전수는 더 이상 교육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지식 창출과 문제 해결의 능력을 기르는 일이 교육의 핵심을 차지한다. 즉 새로운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의 능력, 엄청난 양의 정보 가운데서 적실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의 능력,³⁾ 자신의 사유내용을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⁴⁾의 교육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요구되는 것은 세분화된 분야들의 위상을 전체 속에서 가능할 수 있는 총체적 종합적 사유의 능력, 즉 여러 전공 분야에서 걸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학문적 능력,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 등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능력의 교육은 하나의 특정 전공 분야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고, 더욱이 한

분야의 전문 직업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분업, 분화가 생산성을 높이던 산업화 시대와 달리 오늘의 정보화 시대는 위에서 언급했듯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 기술들이 서로 융합하고 나아가 다양한 산업 분야들, 다양한 직업활동들이 서로 융합하는 시대이다. 이렇듯 인간의 활동 공간의 구조가 고정적 합리적 '체계'에서 유동적 초논리적 '네트워크'로 바뀌고 있는 만큼, 이 '융·복합화'의 시대에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도 이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이를 선도(先導)해야만 그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대학의 현실 변화

다행인지 불행인지 대학의 현실이 크게 변화했고 이로 인해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가 더 강해지고 커졌다. 대학의 양적 팽창과 무분별한 학과 증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30~40년간 대학에 그 많은 학과가 생긴 것은 학문의 분화에 발맞춰 이뤄진 것이라기보다는 학생정원을 늘려 재정을 확충하려는 교육외적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 현실인데,⁵⁾ 입학지원 학생 수가 대학정원보다

3) 이 비판적 창의적 사고능력의 함양은 앞으로의 지식산업사회, 지식기반사회, 지식정보사회에서 실로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할 과제이다. 종래의 한국의 교육은 중등, 고등교육 모두 이 점에서 대변혁을 해야 한다. '압축적인 산업화'를 위해 불가피했던 암기능력 중심의 지식 누적 및 확장교육만으로는 더 이상 발전의 엔진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지식교육이 불필요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4) '논술(글쓰기)교육'이 왜 결정적으로 중요한지, 왜 대학에서 논술시험을 중시하는지 깊은 이해가 확산되어야 한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정된 의사소통과 이를 토대로 한 공동체생활의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文字文解(Literacy)였으며, 이것이 교육의 기본이었음을 상기하자. 오늘날에는 이 문자문해 외에 정보문해(Information Literacy) 능력이 추가적으로 긴요한 것이 되었다. 문자문해 능력의 상위수준에 수동적 이해 아닌 능동적 설득이 놓이며, 논증적, 설득적, 문제해결적 글쓰기와 말하기로 나타나는 이 능력이 바로 리더십의 기본이 된다.

5) 1994년 당시 대학 전체의 학과 수는 557개이다.

적어지는 상황에서 이는 이제 불가하게 된 것이다. 대학 입학 학령인구의 감소는 오히려 대학에 대한 학생의 요구를 더 강하고 큰 것으로 만들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종적으로 또 횡적으로 개방하여 학생들의 진학 및 전공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학부제의 적합성

이상 언급한 심각한 변화들을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학부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숙고해 보자.

먼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생각해 보자. 이 교육은 범(汎) 전공적인 기초교육이요, 이는 전공교육만을 중시하는 학과제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 기초교육을 강화하는 일은 오히려 여러 전공 분야들이 통합되고 그 안에서 공동의 교육적 요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학부제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학부(faculty)'의 영역을 아주 확대시켜 '학부대학(University College)'까지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이 기초교육의 강화는 가장 바람직하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초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학문적-학제적(multi-disciplinary, interdisciplinary) 연구와 융·복합적 교육에 대한 수요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은 앞으로 더욱더 '복합적'인 것들이 될 것이다. 인간의 욕구 자체가 복합적인 것인데 이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기술적으로 이에 부응할 수 있게 되면, 복합적 욕구 충족의 기대는 더욱 증폭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 산업들 간의 융·복합화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이렇듯 문제 자체

가 복합적인 것으로 변모하면 그 해결을 위한 모색과 연구도 다각적-입체적-복합적이지 않을 수가 없고, 이를 기초로 하는 대학교육도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합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뿐 아니라 누제 전체를 조망하여 그 해결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까지도 요구하는 이러한 새로운 교육적 수요를 과연 각 학문 분야의 독자성이 배타적으로까지 작용하는 학과제에서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 보다는 여러 전공 분야가 혼용되어 다학문적-학제적 연구와 융·복합적 교육을 가능케 하는 학부제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러한 교육수요에 부응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한국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대학 입학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입학지원 학생 수가 대학정원보다 적어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학과 증설을 통한 대학의 양적 팽창은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고, 오히려 무분별하게 증설된 학과들의 통폐합이 더 절실한 문제가 되었다. 나아가 대학에 대한 학생의 학업상의 요구를 더 크게 수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반전된 것이다. 학생들의 진학 및 전공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기회를 종적으로 또 횡적으로 개방하여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진단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입학부터 학생의 흥미, 적성, 학업목적보다는 성적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는 이제까지의 관행은 지양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그렇게 하자면 학부제를 전제로 한 신입생 모집단위의 광역화는 환영해야 할 일이다. 학과제 아래에서의 만연했던 입학원서 제출 창구의 치열한 '눈치작전'은 어느 모로 보나 비교육적이고, 비생산적인 현상이었다.

학과제 아래서의 교육적 모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지 않은 학생들, 특히 기초학문 분야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들이 본인의 수학 목표와는 무관하게 학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초학문 분야는 처음부터 일반적인 직업적 전망은 없는 분야로, 그 핵심 목표는 학문연구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교육에 있다. 따라서 기초학문 분야 학과의 커리큘럼은 대체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에 종사하는 소수 학생들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학자양성을 위한 이 교육과정을 일반 직업을 염두에 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수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학과제의 현실이다. 그런가 하면,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본래의 목표와는 거리가 먼 학사과정의 학생교육에 인적·물적 자원의 대부분을 투입하는 반면, 정작 본래 목표를 위한 대학원 과정 운영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부수적인 과제로 취급되는 점이 한국대학 학과제의 현실이다.

대부분의 학생이 원하는 직업연관 교육도 안 되고, 강도 높은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교육도 안 되는 것이 기초학문 분야 학과제의 현실이라면, 학부제는 적어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활로를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해 볼만한 제도이다. 특정 전공에 국한하지 않고 학부에 소속되어 다양한 기초학문 분야의 학업을 이수함으로써 견고한 기초학업 능력 및 종합적 안목을 갖춘다면, 졸업 후 일반대학원에 진학해 학문연구의 길로 나아가든 법률가, 의사, 고위 공직자, 고급 경영인 등 고급 전문직 분야로 나아가든 학사과정에서의 학업이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학과제가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외적인 문제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WTO체제 출범에 따라 고등교육 시장이 개방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국내외 대학 간의 경쟁이 불가피해져 연구 및 교육의 질적 경쟁력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시장의 개방, 자유화를 우려하기 이전에, 국내 대학이 이렇게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미 유학을 선호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하며, 아예 중등 교육과정부터 구미에서 교육받으려는 이른바 '조기유학생'의 급증 현상이 함의하는 바를 숙고해야 한다. 결국 한국 교육 전체의 질적 선진화를 위해 대학의 학문적 수월성을 위한 교육구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인과 경쟁하려면 세계인과 지적 지평을 공유해야 하고, 거기서 이기려면 그보다 더 우월한 지적 능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Ⅳ. 학부제의 정착을 위하여

필자가 '학부 없는 학부제'라고 그 사이비적 측면을 부각시켜 혹독한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그간의 학부제 시행이 전혀 무의미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일단 대학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고, 가시적 성과로서 학생들의 실질적 학업선택권을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은 이를 단번에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육적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학부제의 정착을 위해 이를 예비하는 과도기적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데에 있다.

1. 현행 학부제의 문제점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부제 아닌 학부제'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 이를 간추리자면 다음 사항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부제'의 근본 취지가 관계 당국과 대학들 사이에서 정확히 이해·수용되지 않았다. 관련자들 간의 인식 또는 공감대 부족으로 유기적인 연계성 또는 일관성 없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왔던 것이다.

둘째, 학부제 시행은 교육부의 권유가 재정 지원과 연계되어 준 강제로 시도되는 바람에 대학들은 연구와 교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기획 보다는 외적인 형식적 요건을 갖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데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셋째, 그 결과 '학부제'는 획일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시행되었다. 학부제가 정착 시행되어야 할 분야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학부' 구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부제'가 불필요한 영역까지도 억지로 시행되면서 무리한 학과병합을 추진하게 되었다⁶⁾.

넷째, 그러다 보니 '학부'에서의 교육을 위한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이 마련되지도 않았다.

진정한 '학부'가 실제로 없다 보니 다양한 전공에 속한 학생들이 공유하는 '커리큘럼'도 없는 것이다.

다섯째, 학부제 시행의 최소 요건인 '모집단위 광역화'가 학부제 시행의 전부인양 왜곡되어 결과적으로 근본 취지와는 반대로 기초학문 분야가 위축·약화되었다⁷⁾.

2. 학부제의 정착을 위한 방안

이상이 학부제 10년의 현실이라면,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선택지 중 우리가 택해야 하는 길은 근본 취지를 충분히 살려 진정한 의미의 학부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아니 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이를 예비하는 길이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및 교육공동체로서의 학부를 구성하는 것이 과연 연구와 교육에 더 적합한 것인지, 이 문제를 학문 분야별로 차별적으로 검토하고 난 후에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의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굳이 학부제를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학부제가 적합한 분야는 기초학문 분야이고, 꼭 필요하지 않은 분야는 특정 전문 분야의 직업교육을

6) '학부제'가 시행되려면, 문자 그대로 '학부(faculty)'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학부제가 시행된 어느 대학에도 명실상부한 '학부'가 구성된 곳은 없다.

대학 조직표에는 '○○학부'라고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몇몇 학과를 '서류상으로만' 병합해 놓은 것이지 '○○전공'이라는 이름으로 '학과'가 그대로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7) 학부제 시행의 전제로 모집단위가 광역화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난 악성 부작용 중 하나가 기초학문 붕괴이다. 모집단위를 광범하게 넓힐수록 학생들에게는 전공선택 기회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학교로서는 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믿게 되기 때문에, 전공 분야의 성격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말 그대로 하나의 광범한 모집단위 속에 여러 전공 분야를 망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직업교육적 성격이 강한 전공 분야와 학술연구 지향의 성격이 강한 전공 분야가 평면적으로 경쟁하게 되고, 여기서 학문지향적 성격이 강한 기초학문 분야의 전공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서 외면 당해 이 분야가 더욱 위축되는 결과가 빚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담당하는 실용(응용)학문 분야이다⁸⁾. 이와 관련하여 각 대학은 그 대학의 고유한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 전체로서 또는 그 대학 내의 학문 분야별로 유형을 정하고, 이에 비추어 학부제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둘째, 학부제를 시행하는 분야에서는 명실상부한 '학부'의 설립을 예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학부' 전체에 공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교수진 및 대학원생은 대학원과정을 운영하는 각 전공 또는 학과에 그대로 소속되어 있더라도, 학사과정의 학생만큼은 전공 구분에 간하지 않은 가운데 여러 분야의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모집단위 광역화를 견지해야 한다. 이는 학부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예비조치이다. 학부제 시행 후 대체로 교육적 성과로 인정받는 것이 '학생의 전공선택 기회 확대'라는 것인데, 이는 물론 모집단위를 광역화한 데서 온 긍정적 성과다.

3. 학부제 정착을 위한 과도기적 예비책

학과제도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온 대학 구성원들은 대부분 이상에서 제시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한 이 통념이 약화될 때까지 진정한 의미의 학부제는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럴 경우 '학부제'의 역할과 기능을 부분적으로 대신할 수 있으면서 그것이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점진적이고 과도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예비적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기획해 볼 수 있다.

1)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의 의무화

학사구조상의 제도적인 변화 없이 학부제의 새로운 교육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의 의무화이다. 학생들이 3개 분야 정도의 학문 영역을 공부하도록 강제한다면 이로써 다학문적, 학제적, 융·복합적 교육의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이라도 시행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응용학문을 전공하

8) 기초학문 분야에서는 아래 표의 오른 편 두 유형중 하나를 택하고, 응용학문 분야에서는 학부제 대신 왼 편 유형처럼 통합된 대과(大科)를 운영하도록 한다.

대규모 학과(D)	학부(F) 무전공제/3학년부터 전공제 등 다양	학부대학(C) 무전공제/3학년부터 전공제 등 다양
예) 기계공학과+기계설계학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예) 인문학부/사회과학부/자연과학부	예) 학부대학/Harvard College/ 동경대 고마바 캠퍼스

D형(Department)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학부'라고 할 수 없고 실은 '대규모 학과'이지만, 그 분야의 성격상 이로써도 교육적 성과는 충분하리라 본다. F형(Faculty)이 바로 유사한 학문 분야들을 통합하는 전형적인 학부이고, C형(College)은 대학 전체를 하나의 학부로 삼는, 더 과감한 학부 형태라 할 수 있다. 물론 학부에서도 학부대학에서든 졸업 전 적당한 때에 전공학업을 학생 스스로가 선언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융·복합적 교육을 약화시키지는 않아야 한다.

는 학생은 반드시 순수기초학문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에도 복수전공제도가 있으나 이는 직업적 전망이 적은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이 다른 응용학문 분야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계기로만 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차적으로, 학생의 학업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학부제가 실시되지 않더라도 이 복수전공제 외에 제한 없는 전과제(轉科制)를 허용하는 것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2) 연계전공의 다양화, 활성화

몇몇 학문들의 복합으로 교육과정을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재구성하여 이를 새로운 전공으로 이수하게 하는 것이 연계전공인데, 이 방안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교육지원을 충실히 한다면, 융·복합적 교육이라는 학부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 '연계전공'은 강제할 수 없고, 또 종래의 전공학문 관념에 친숙하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의 환영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를 전담하는 교수진이 확보된다면, 새로운 학문과 교육의 영역을 개발하려는 열의가 이 재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과정의 교차-과목의 중복 설강

아주 소극적인 방법의 하나로 각 전공에서 타 전공의 과목들을 중복 설강함으로써 학생들이 오직 하나의 전공 학업에만 머물지 않고 이웃 학문을 접하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장치이다. 학부제의 교육적 목적을 내실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부제를 실시하기 전에 교육과

정의 변화를 먼저 실험적으로 유도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학과를 넘나드는 과목들을 개발하여 공동 설강하는 커리큘럼 구성의 변양은 학부제를 예비하는 실질적 실마리가 될 수 있다.

V. 결론

학부제는 언젠가 한국의 대학들이 시행하게 될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출현하기 위해서 이는 불가피한 일이다. 인류의 문화사회적 삶의 양식이 바뀌는데, 이 삶을 기획하고 주도할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방식이 종래의 것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교육자의 자발적·창의적 노력과 정밀한 계획으로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행정적 노력이 함께 요청된다. **박동현**

손동현

서울대학교 철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마인츠대학교에서 철학, 신학, 교육학을 수학하였으며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강사, 독일 마인츠대학교 및 미국 브라운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교수 및 학부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철학연구회, 철학윤리교육연구회, 대학교양교육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역서로는 『객체화된 정신의 존재방식』, 『존재론』, 『역사의 인식』, 『비판이론』, 『존재론의 새로운 길』 등이 있다.